

# 나주시,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본격화

## “120만 평 규모 산단의 주인을 찾습니다”… 용수와 전력 갖춘 미래 산업 거점 부상

전라남도 나주시가 에너지 기반 산업 생태계를 앞세워 RE100(재생에너지 100%)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120만 평 규모 산업단지와 용수 및 전력 인프라를 갖춘 미래 첨단산업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9일 부시장 주재로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식과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전략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 부시장실에서 열린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식에서는 장현철 자문관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강상구 부시장을 비롯해 노관숙, 나철웅 자문관 등이 참석해 향후 투자유치 로드쇼 추진, 기업인과 정칙인사 초청, 성공 사례 공유 등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오후 1시 30분에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전략회의가 열려 강상구 부시장과 3개 국장, 투자유치 자문관 4명(노관숙, 장현철, 김문석, 나철웅), 박정수 성균관대 교수, 전력 반도체 기업 ㈜디시오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유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나주시는 에너지국가산업단지 20만 평과 노안 일반산업단지 100만 평 등 총 12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용수와 전력 문제 역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수 교수는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퍼센트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총당하는 글로벌 캠페인 지역”이라며 “RE100 산업단지의 신뢰도 확보로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주는 한국전력 본사를 비롯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국립나주 에너지과학관, K-그리드 인재창업벨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이라며 “RE100 산업단지의 신뢰도 확보로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전력 반도체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농생명과 식품 바이오 반도체, 모빌리티 전력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전력 반도체 등 5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제안하며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한국전력 자회사, 바이오 및 식품기업, 현대모비스, 해외 농기계 기업 등을 핵심 선도 기업 후보로 제시했다.



## 구례학사,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 1998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서울 소재 구례학사 개관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구례학사는 구례군(군수 김순호), 재경향우회(회장 이우엽), 재단법인 구례장학회(회장 김광래) 회원들의 고향사랑과 지원이 빚어낸 결실로 수도권 진학 대학생들의 든든한 보금자리로 자리잡고 있다.

구례학사의 시작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리산한의원 원장이었던 고(故) 홍원표 한의학 박사는 사재를 출연해 지운학사를 개설하고, 1997년 4월까지 5년 2개월 동안 구례 출신 유학생 22명의 면학을 지원해왔다. 이후 1997년 6월 25일 고 홍원표 박사와 구례군, 재경향우회 임원들이 뜻을 모아 수도권 유학생 지원을 위한 구례학사 신축을 결정했다.

지운학사의 토지와 건물 등 기본재산은 구례군에 기부됐으며, 고 홍원표 박사와 구례군, 재경향우회의 협력으로 1997년 6월 2일 강서구 화곡동에 착공하여 1997년 11월 25일 준공했다. 이듬해인 1998년 2월 2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학사를 개관하여 34명의 입학생이 입학하였고, 재경향우회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공익법인 재단법인인 구례장학회를 설립하여 학사관리를 시작하였다.

이후, 기존 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불편 및 학사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재경향우회 회원들이 장학기금과 군의 지원 등을 통하여 2020년 7월 1일 현재의 영등포구 대림동 학사 건물을 매입, 건물수선 및 학습실 등을 개선하여 현재 34명의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구례학사(원장 박경규, 사감 박종학)는 쾌적한 주거공간과 공부방,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지적향과 인접한 편리한 교통여건으

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구례학사 개관 이래 재단법인 구례장학회에서는 법인 장학금 2억 2천 6백만원, 백운장학회(고 홍원표 박사), 한국웹스장학회(회장 박영서), 예봉장학회(회장 신영환), 지운장학회(구례학사 선배모임), 죽헌장학회(대표 김현자), 청석장학회(대표 김광래), 세종장학회(대표 이영수), 녹십조장학회(회장 박형문) 등 많은 향우들이 개인 장학금 2억 2천 9백만원에 지원하고 있다.

임사생들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낮은 환경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지역과 고향 어른들의 도움으로 내 집처럼 편안하게 공부하고 있다”며, “도와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잊지 않고, 훗날 구례를 빛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학사는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으로 단순한 기숙사를 넘어 구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장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향우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래 구례장학회 이사장은 “입학생 여러분은 고향의 자람이며, 앞으로 구례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로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다.

이우엽 재경향우회장은 “입학생 여러분은 구례군은 물론, 광주·전남과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항상 건강과 안전한 가운데 면학에 정진하여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다.

구례/한정호 기자

영암군이 이달 12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지역 기반조성사업 설계 합동집무'에 들어갔다.

이번 합동집무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읍·면 시설직 공무원이 참여해 설계 실무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

이 공직자들은 앞으로 합동설계단에 참여해 지역개발사업 설계로 약 3억원의 예산 절감을 하게 된다.

## 영암군, 지역기반조성사업 합동 설계로 예산 3억 아낀다

### 2/4일까지 읍·면 공무원 합동집무… 합동설계단 253건 자체 설계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들의 설계 참여로, 주민 요구 설계 반영 및 불필용 사항 해소, 영농 편의 증진, 사업 실효성 제고 등도 기대된다.

올해 영암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은 총 531건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생활

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257건, 농업기반시설 개량·개선사업 274건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사업비 2,000만원 이하의 253건은 이번 합동집무를 바탕으로 영암군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한다.

토지보상 등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밟고 있는 영암군은, 합동집무를 거쳐 2월 초까지 현장조사와 설계를 마치고, 같은 달 착공해 영농기 이전 지역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합동집무로 설계 용역비·기간 절감, 영농 환경 개선, 주민 숙원 해소 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 ‘완도치유페이 2월 시행’ 관광객 유입·상권 활성화 기대

### 관광객 1인당 최대 10만 원 쿠폰 또는 포인트 지원

완도군은 치유 관광객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힐링하기 좋은 곳, 치유의 섬 완도’를 슬로건으로 ‘완도치유페이’ 개별 관광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치유페이’는 올해 2~4월, 9~11월에 시행한다.

관광객(1인 이상)이 치유 페이 누리집을 통해 사전 여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광지 방문 후 개인 SNS에 인증 사진 3장, 해시태그, 50자 이상의 글을 남기면 쿠폰 또는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쿠폰과 포인트는 현장 안내소와 누리집을 통해 인증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숙박,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 또는 특산물 소फल인 완도정정마켓 포인트를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영수증(신청인 카드 1개)

을 제출하면 이용 개소 수와 영수증 총합에 따라 10만 원 이상은 3만 원(1개소 이상), 20만 원 이상은 6만 원(2개소 이상), 30만 원 이상은 9만 원(3개소 이상)을 쿠폰 또는 완도정정마켓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도서 지역(금일, 노화, 청산, 소안, 금당, 보길, 생일) 여행 시에는 1만 원(단 증빙 영수증 총액 10만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쿠폰은 완도치유페이 현장 안내소(해변공원로84)에서 수령 후 관내 숙박,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 체험장 등에서 이용 가능하며, 포인트는 완도정정마켓에서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현장 안내소는 2월부터 운영한다.

완도/장선우 기자

## 장성군 “복잡한 세금 문제,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마을세무사 5명 위촉… 국세·지방세 등 무료 상담 제공

장성군이 최근 제6기 마을세무사 5명을 위촉했다.

마을세무사는 저소득 주민, 영세 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국세·지방세 전반 △지방세 불복 청구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에선 2016년부터 지역 세무사들이 제는 기부 형식으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위촉된 제6기 마을세무사는 총 5명으로 기존 김영신, 김화석, 남덕현, 유상현 세무사에 양금숙 세무사가 새로 합류했다.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장성군민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방문 상담은 물론 전

화, 팩스, 이메일을 이용한 상담도 가능하다.

단,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상담 업무 외에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등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전단지 확인하거나, 군 세무회계과 세정팀(061-390-78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